

OPEC의 最近動向과 國際石油市場

에너지經濟研究院

에너지情報分析室*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Mr. Paul Tempest (Shell International社 고문)를 초빙, 국제석유세미나를 개최함. 이 글은 에너지 情報分析室이 세미나의 發表主題와 討論을 要約한 것임.

최근의 한자리수 국제유가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시장확대에서 비롯되었다(그림-1 참조). 이같은 市況은 86年의 油價暴落 사태와 유사한 것이다.

OPEC는 현재, 하루 약 2,05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중인데, 이 공급량은 쿵타(이라크의 쿵타를 이란과 同一로 간주할 때)보다 300만배럴 높은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초과공급의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소위 매장량 富國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中東 아랍권 OPEC회원국은 풍부한 매장량과 잉여생산능력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高油價보다는 시장지배력에 보다 높은 정책배려를 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生産擴大戰略은 지난 6월 하순에 이미 경고된 바 있었다. 그때 사우디는 OPEC가 빠른 시간내에 쿵타위반에 대한 단호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自國도 쿵타以上으로 증산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쿠웨이트도 이에 同參하였다. 아울러 사우디는 최소 2個國 이상 회원국의 생산동향을 관망할 것이라 밝혔다.

더우기 이란과 이라크는 휴전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산능력을 확대, 원유증산을 도모하고 있다. 財政與

件이 허락한다면 이들 양국은 2~3년내에 하루 400만배럴을 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兩國은 현재, OPEC에 대하여 쿵타증량을 요구해 놓고 있으나 다른 OPEC회원국이 이란과 이라크를 위해 自國의 시장몹을 희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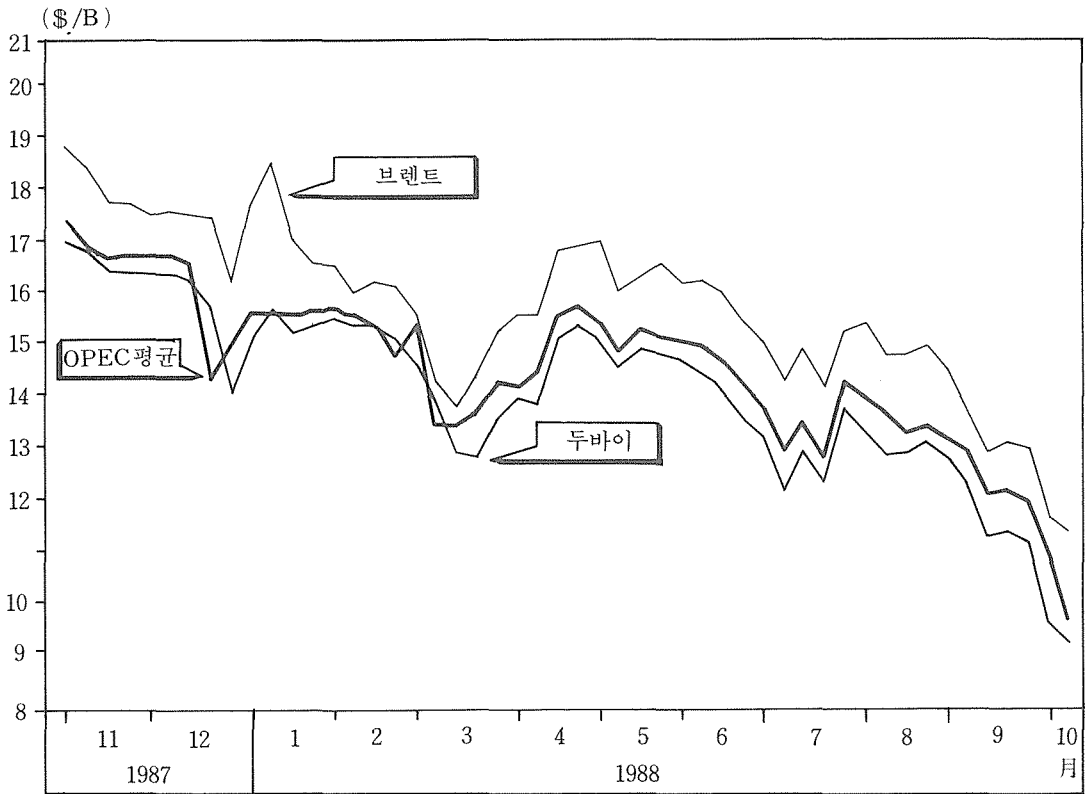
OPEC의 광잉원유생산이 더욱 심하여 진다면(예컨대 하루 2100~2300만배럴 생산) 油價는 최저 5~8달러에서 형성될 수 있다. 자유세계의 산유량중 하루 약 4,000만배럴은 한계비용이 배럴당 5달러 이하에서 생산된다. 또한 하루 약 1,000만배럴은 5~8달러의 배럴당 生産費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OPEC가 최대한 생산을 늘리게 되면 油價는 비럴당 5~8달러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非需期에는 5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5~8달러의 油價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같이 낮은 水準의 油價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주요 產油債務國이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OPEC을 중심으로한 주요 산유국은 증산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석유는 有限資源이기때문에 한자리수 油價下에서

〈그림 - 1〉 國際油價 추이



는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資源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셋째, 한자리수 油價는 시장확대파의 長期石油戰略에 어긋나는 것이다. 시장확대파는 適正油價, 예를 들면 15~18달러의 유가를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國際石油價格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OPEC는 86년의 경우처럼 생산량을 감축하여 유가인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86년 당시 국제 석유가격이 7~8달러까지 떨어지자 OPEC는 산유량을 감축, 油價를 15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70년대의 高油價로 인하여 세계 석유 수요량은 80년대중 대체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燃料代 替와 에너지 절약자원에 의한 것이다. 대체와 절약투자는 15~20달러 油價下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석유수요는 향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그림-2 참조). 그런데 開途國이 석유수요 증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美國, 英國 등 先進國 非OPEC國의 석유생산은 감소되겠지만, 멕시코 등 開途國 非OPEC國이 석유를 증산할 것으로 보여 非OPEC산유국의 석유공급은 현수준보다 크게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OPEC原油에 대한 세계수요는 小幅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OPEC가 선택할 수 있는 석유정책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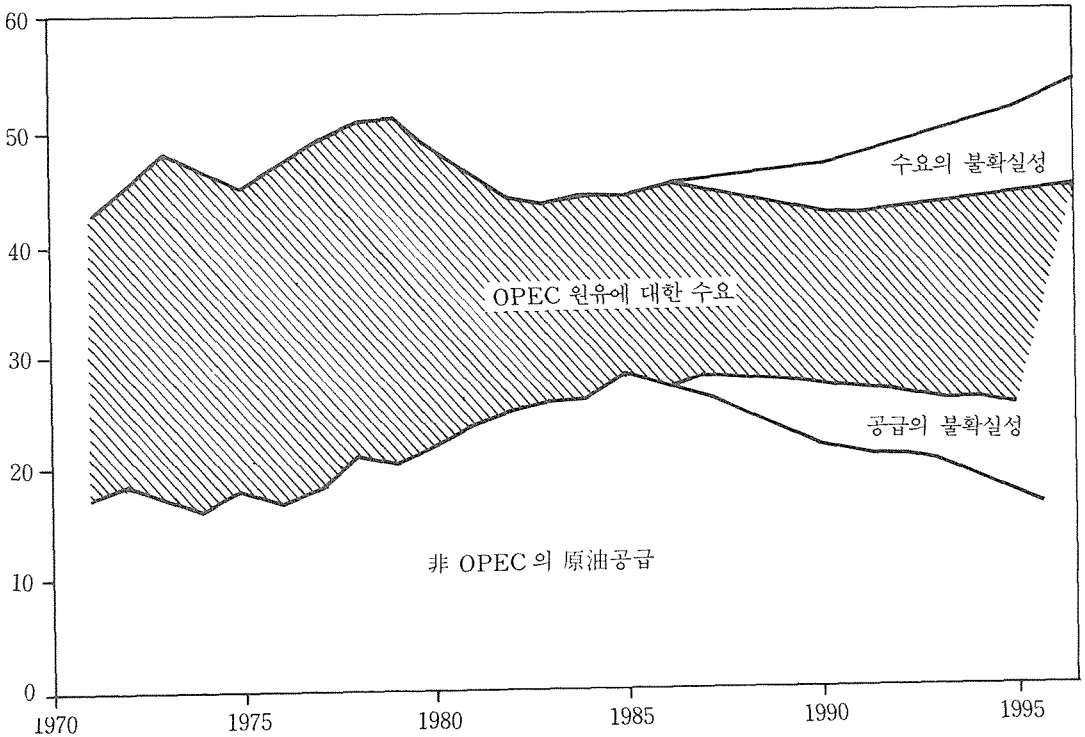
OPEC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쿼터제도를 포기하고 시장확대를 확대하는 대신 油價는 시장수급에 맡기는 정책이다. 이같은 石油政策은 사우디 등 中東 아랍권 OPEC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 쿼터제도를 재정비하고 油價(예컨대 15~20달러)를 방어하는 정책이다. 알제리, 리비아 등 주로 剩餘生産能力이 적은 회원국들이 후자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림 - 2〉 OPEC 原油에 대한 需要

(백만B/D)



OPEC는 향후 두가지 정책대안을 번갈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國際油價가 예전대 10달러를 보일 경우 이란, 리비아 등 油價引上派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석유가격이 20달러 내외의 강세를 보인다면 시장몹 擴大派가 OPEC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0년대 전반까지의 國際油價는 상당히 큰 流動幅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란은 OPEC 長期戰略委員會 會議 또는 다음 總會에서 油價인상을 위해 발언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우디, 쿠웨이트 등은 새로운 油價구조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즉, 이란은 생산감축(또는 쿼타유지) = 油價인상(예전대 18~20달러)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우디는 쿼터의 얼마간 상향조정 = 公示價 인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같이 대립된 주장이 있다고해서 OPEC가 해체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OPEC는 새로운 市場均衡을 유도하기 위해 또 하나의 妥協點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의 長期戰略 입장에 비추어 보전대 사우디는 公示價格의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공수포에 지나지 않는 현행 18달러 公示價를 15달러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세계석유소비의 증가폭을 감안해 볼 때 18달러 固定價 構造는 이미 실효성없는 油價체제로 보여진다. 사우디(야마니)는 18달러 固定價 채택시 연간 1.5% 정도의 석유소비 증가를 기대했으나, 실제 수요는 15달러하에서 연간 1.5%정도 증가하고 있다.

石油代替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사우디는 15달러 수준의 公示價案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86년 유가폭락 이후 석탄과 천연가스가격이 石油와의 새로운 競爭構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에너지환경의 변화추세를 감안해 볼 때, 韓國의 天然가스政策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先進國들은 에너지政策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보존과 석유공급확보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에로써 天然가스를 發電用 燃料로 사용한다든지 디젤油와 가스를 혼성한 新型 수송용 燃料을 개발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에너지환경의 변화는 다른 한편으로 石油消費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스웨덴과 벨기에에는 최근, 천연가스를 原子力에 대한 代替發電源으로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별 원전개발 정책은 지속적인 원전개발추진, 원전계획축소, 원전해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스웨덴과 벨기에에는 최근, 각각 원전폐지와 원전건설계획의 보류안을 채택하고가스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美國과 소련은 신형 수송용 燃料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중에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의 감축 및 대기 오염의 방지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대체燃料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美政府는 정부소유 차량의 增車分을 代替燃料 자동차로 우선 충당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메탄올, 에탄올, 압축천연가스 등이 石油代替 燃料로 이용되고 있다.

소련은 陸路輸送 部門의 대체燃料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新型 트럭엔진은 디젤油와 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가스사용 比率을 80% 이상까지 增大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형 엔진은 과거의 일반 디젤엔진보다 더 經濟的인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

□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

남편의 십계명

- ①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변치 않도록 노력하라.
- ②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말라.
- ③ 평소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여라. 남편은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가꾸는 정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④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라.
- ⑤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라. 결혼의 행복이란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평소에 부부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가에 달려있다.
- ⑥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 ⑦ 가정에 불화가 있을때 남편은 한걸음 아내에게 양보하라. 아내의 매력기 사랑스러움이라면 남편의 매력은 너그름이다.
- ⑧ 가정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라.
- ⑨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 키워주도록 하라.
- ⑩ 하루에 두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즉시 일러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길러라.

아내의 십계명

- 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길러라.
- ② 음식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식탁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교의 광장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산실이다.
- ③ 혼자만 말하지 말라.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부부가 충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 ④ 남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을 늘어놓거나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
- ⑤ 남편에게 따져야 할 말이 있을 때는 그의 기분 상태를 참작하라.
- ⑥ 남편에게는 혼자만의 정신적 휴식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
- ⑦ 중요한 집안 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따라라.
- ⑧ 남편의 수입에 맞춰 절도있는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라.
- ⑨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져라.
- ⑩ 하루에 두번 이상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지적해 줌으로써 남편이 기쁨과 긍지를 갖도록 하라.